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주사랑 쇼핑축제’ 연다

14~23일 문화예술 전시·캐릭터·베이커리·뷰티 팝업 등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쇼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대규모 지역 축제를 마련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최동희)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지역 고객을 위한 ‘전주사랑 쇼핑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구매 혜택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과 연계한 전시와 다양한 팝업스토어, 테마 행사 등을 백화점 전관에서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쇼핑 공간에서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스퀘어’ 전시가 눈길을 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문 예술단체 ‘미술공간채움’ 등과 협력해 14일부터 2~4층 주요 공간을 갤러리 형태로 꾸민다. 고객들이 쇼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6층 이벤트홀에서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캐릭터 올스타전’이 열린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경

다양한 캐릭터 굿즈와 전시 공간을 마련해 키덜트 고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자하 1층 식품관 행사장에서는 14일부터 27일까지 ‘빵지순례’를 주제로 한 베이커리·디저트 행사가 진행된다.

시오광야, 정남미명과, 송화당, 온심당, 도너츠 방앗간 등 입소문을 탄 베이커리와 디저트 브랜드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빵지순례’ 트렌드를 반영해 소금빵과 구황작물빵, 산도, 모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SNS에서 화제

가 된 제품들도 함께 마련해 맛과 함께 보는 즐거움까지 더할 예정이다. 뷰티 행사도 마련된다.

1층 화장품 코너에서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슈퍼 뷰티 페스타’를 개최한다. 전주점 단독 기획세트와 선착순 무료 샘플링 이벤트를 진행하며, 조 말론 런던과 로에베 퍼퓸 등 해외 유명 향수 브랜드의 단독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팝업스토어도 열린다. 꾸미기 문화를 반영한 ‘별다꾸’ 팝업스토어와 여름철 대표 주름 옷 브랜드인 ‘플리츠미’ 팝업스토어가 행사 기간 운영된다.

아웃도어와 골프, 스포츠, 진·컬처 캐주얼 상품군에서도 행사 첫 주말 다양한 사은품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동희 롯데백화점 전주점장은 “전주점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점을 특별한 공간 기획과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지역 랜드마크로 구현하고, 고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는 매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3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지역 대표 중소·벤처기업 대표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리딩비즈 투자조합 1호’ 결성총회를 개최했다.

후배 창업기업 투자에 팔 건었다

전북 선배 기업인들, ‘전북리딩비즈 투자조합 1호’ 결성

전북지역 선배 기업인들이 후배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 이하 전북중기청)은 13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지역 대표 중소·벤처기업 대표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리딩비즈 투자조합 1호’ 결성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리딩비즈 투자조합 1호’는 총 2억1천만원 규모로 조성됐다. 지역 선배 기업인들이 후배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펀드로, 사단법인 전북리딩비즈클럽이 지난 7월 사단법인 절차를 마친 이후 추진한 첫 투자조합이다.

전북리딩비즈클럽은 전북지역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선배

기업인들의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조직된 민간 주도 투자 네트워크다.

리딩비즈클럽은 2024년 2억원 규모의 ‘전북벤처투자조합 1호’를 처음 조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한국모태펀드 출자를 유치해 20억원 규모의 ‘전북벤처투자조합 2호’를 결성했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존속 기간 7년으로, 투자기간 3년과 관리기간 4년으로 운영된다. 투자기간 동안 3년 미만의 전북지역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50% 이상을 주무적 투자하고, 기술 기반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 결성은 전북중기청과 전북리딩비즈클럽이 수년간 이어온 민간협력의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오상근 기자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선발 규모 1만명으로 2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더 많은 국민에게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관계부처 합

동으로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을 혁신 인재들이 창업 생태계에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선발 규모를 1차보다 2배 늘려 총 1만 명을 발굴·육성한다. 일반·기술 분야 8천명, 로컬 분야 2천명으로 구성되며 참가 자격도 기존 예비창업자와 3년 이내 재창업자에서 7년 이

내 재창업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프로젝트 취지에 맞춰 예비창업자를 80% 이상 선발하고,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창업자도 70% 이상 선발할 계획이다.

창업 보육기관도 확대된다. 하나는행과 신한 스캐어브릿지 등 대·중견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보육기관은 170여 곳으로 늘어난다.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편의성도 강

화된다. 멘토 3인의 공동심사와 기관별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및 외부 데이터 기반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AI 검증모델을 도입한다. 신청서에 대한 심사 피드백 하한제를 마련하고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기능도 제공한다.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중기부는 10월 중 1만 명의 혁신 창업자를 선발한 뒤 단계별 보육·경연 프로그램과 범부처 및 민간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도전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참여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13일 익산에 소재한 폐전선 등 비철금속류 재생업체(주)이수종합상사를 방문해 ‘2026 전북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중소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유학생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채용과 장기 재직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인턴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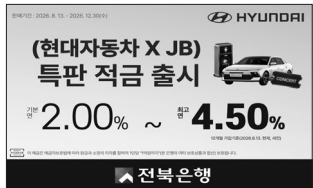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도내 우수 중소기업 6개사와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9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과 유학생 간 맞춤형 매칭을 비롯해 사전교육, 인턴십 근무, 취업 연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최고 연 4.50% ‘현대자동차 XJB 특판적금’ 출시

전북은행이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금융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결합한 특별 금리 적금상품을 선보인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현대자동차와의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XJB 특판적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2.00%에 우대금리 최대 연 2.50%를 더해 최고 연 4.50%(세전·12개월 기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이다.



판매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이며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1인 1계좌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야

전주매일 캠페인